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

이 연구에서는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해외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5년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 연구가 진행되었고, 관련 법안 및 조례 제정을 비롯해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를 앞다퉈 신설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유럽 연합 청년정책과 유사하지만, 생애주기와 장기적 인생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구고령화와 청년 세대 의식 변화에 따라 청년 문제를 인구고령화 문제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과 노인을 연계하는 해외 국가들의 세대융합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소통 기회가 줄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멘토링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유럽 사회적 대화 개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한편, 경기도 청년의 직업관 및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내 9개 대학 재학생 50명을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인터뷰하였다.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역량과 안목을 넓히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생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및 문화 정책,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 활동 및 보건정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등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시군 단위에서는 청년 상황에 맞춰 멘토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으로서 청년이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의제를 설정하여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청년, 청년정책, 세대융합, 멘토링, 참여